전(全) 역사 두루마리와 어린양

(계5:1~7)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7.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전 역사 두루마리와 어린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본문에 하늘 보좌에 관한 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는 모습으로 계시가 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두루마리가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한 권 들고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표현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99.99%입니다. 또 생각을 실행한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는 생각이 1%나 될까요? 그중에도 1%의 옮겨진 생각도 현실로 실현되기에는, 그 1% 중에 90%는 다 좌절되어 버리고,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우리 생각은 잘

못된 생각도 많아서 현실로 표현되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일단 생각하시면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 이것 참 잘못된 생각이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법은 없죠.
또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이루시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루마리에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신 것인데 무슨 생각이냐?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책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나왔을 때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냥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면 이루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책에 기록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창조 때처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셔서 현실로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서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이 일단 책이라는 중간단계로 표현된 겁니다.
왜 중간 단계를 설정하셨을까요? 또 중간 단계를 설정하셨더라도, 기록된 대로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 세상에서 펼치실 창조되어진 세상에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서 책도 필요 없이 생각을 그대로 입으로 표현하시면서 창조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해나가실 때에는, 곧바로 생각을 현실로 옮기시지 않고 중간에 책의 단계를 거치는데, 책의 단계로 옮기셨으면 그냥 책의 단계에 있는 걸 실행하시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책이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을 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을 뗀다는 것은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럼 인 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내용들이고, 하나님이 펼치시면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일곱 개의 봉인을 해놓고 인을 뗄 자를 필요로 하시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의 맨 앞에 있는 창세기의 맨 앞부분과,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책의 내용이 수미(首尾), 머리와 꼬리가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기록한 책들이 펼쳐지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인을 떼는 자를 필요로 하실까요?
여기에 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의 의도가 있느냐 하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산천초목과 하늘을 나는 새나 땅을 뛰어다니는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 인격이 다른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다, 언어를 말한다,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이 세상은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론적으로 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격적인 교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정해진 대로 운명적으로 그 길을 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끝만큼도 예외 없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차피 정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될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천초목과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나를 위해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면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게 지은 이유가 뭡니까?
안 받아 들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도록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을 받아들이지만, 결국은 그 생각을 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인을 떼는 과정을 만든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을 만드시고 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고 이게 좋은 거니까,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혹시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날지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설정을 해놓으신 것이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 죄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인격성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단풍나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제 가을이니까 단풍을 내야지' 이런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인간 세상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전부 스스로의 판단력으로부터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역사에서의 통치권이 거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는 거예요.
요한이 운다는 이 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뵈었어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의 감각을 통해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것이,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에 도대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도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더 이상이 없을 만큼 최고로 좋다. 더 이상이 없을 만큼 구분되어지게 아름답다. 더 이상이 없을 만큼 사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 가장 최선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들이 '거룩하다' 한 마디 해놓고 다른 눈으로 보니까 또 거룩해요. 금세 또 거룩한 겁니다.
돈은 좋다고 해도 한 달만 지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백화점에 가서 일억 원 어치 쇼핑을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맨 처음 벌 때에는 좋다고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다' 하고서 보니까 여지없이 새로 또 좋아요. 그러니까 최상으로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한이 우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전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계획들이 다 무산되게 생겼습니다, 다 땅에 버려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마치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시험을 봤는데, 일곱 여덟 번 떨어진다면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게으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데도 자꾸 떨어져요. 어머니의 취직이 아니에요. 아들의 취직인데 아들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홉 번 만에 취직이 되면 어머니가 또 울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요한에게 제일 아까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도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시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돈이 있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시는 뜻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어질 때에, 이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아까운 뜻들이 다 무산되게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죄악 속에 있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삶이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지든지, 십자가로 이끌어지든지, 다윗처럼 왕으로 이끌어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받아들일 인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을 100% 수용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모세가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인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런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공생애가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는 오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있을 때에만, 하늘의 뜻이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멀리해야 되고, 가장 강하게 거부해야 되고, 십자가의 자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질수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에 의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로부터 먼 자리에 있을수록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거지 나사로나, 나병이 걸린 그 옛날에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몇 배, 몇 십 배 비참한 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도, 주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신 겁니다. 이걸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의해서 생긴 죄악이 이 세상을 편만하게 지배하고 있는데, 그 죄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의지를 발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주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면 나한테 절하겠느냐? 내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배고프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전부 육체와 연관된 시험들을 당하실 때에 이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갖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하시기 위한 유일한 존재로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7절에 보면 "어린 양"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어린 양의 머리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일곱 뿔'
뿔은 힘과 능력,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눈'
눈은 그야말로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일곱 등불로 표현되었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일곱 눈으로 표현됩니다.

일곱 눈인, 일곱 영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눈이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뿔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바마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베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진핑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중국을 보시고 미국을 보시고 일본을 보시고 이북을 보시고…
그러면 뿔이 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의지와 계획이 한 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뿔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세상의 보이는 모든 곳으로 다 발산되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퍼져나가는 파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교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교회 바깥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진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는 이 세상보다 더 중심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알고 있죠.
CNN이라든지 NBC 방송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있는 IS 본부를 공습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증권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북경에서 무슨 일이 열렸다. 일본의 자위대가 어쩐다. 이북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일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변두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담아 두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 들이면, 예수님 안에 나를 향해 담고 계셨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다 변두리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대장금을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대장금에서 왕이 나옵니다. 왕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감독이 나를 불러서 왕 역할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왕이 하는 일은 대장금이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 참 맛있구나!’라고 하는 게 다예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이것은 늘 먹던 닭이 아니냐? 이 닭을 어찌 만들었기에 이리도 맛이 있느냐?’ 이게 좀 대사가 복잡해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드라마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 수라간에서 음식 만드는 상궁을 돕는 무수리인 장금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왕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장금이가 중심이에요. 왕은 들러리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중심이고, 중국이 중심이고, 강대국들이 중심이고,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아베 수상 같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돈 많이 버는 재벌들이 중심인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중심 같아요. 또 민중을 염두에 둔 학자들은 민중이 중심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다 변두리예요. '아, 맛있구나!'라는 대사만 하는 왕 같은 변두리들입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의 역설, 그 가치의 역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중심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릉이라는 시골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같이 죽은 자가 됨으로써 내 판단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의지가 죽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이 삶이, 오바마의 미국과 세계 정책의 결정보다, 시진핑의 정책보다, 아베의 정책보다, 하나님께는 더 중심권에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가 없고 군사력이 약하고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약해도 우리가 신경 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중심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나 국방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 어떻게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교인다운 교인이 되느냐가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이 별의별 상징적이고 어려운 언어들로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난해한 표현들이 잔뜩 들어있어도 결국 이 이야기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인간이 있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자기의 판단과 의지와 계획을 포기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죄에 먹혀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간에 서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죄악에 의해서 발현되고 있는 의지의 주체, 계획의 주체, 판단의 주체됨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저항이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 된 것이 계시록이라는

이야기죠.

전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내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의 주권자이시고 그 통치의 중심에 주님이 서 계시고, 바로 그 중심핵이 되시는 주님께 내가 붙어 있사오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심에 마음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